방학…'고삐 풀린' 청소년 범죄

학교·학부모 통제 벗어나 절도·탈선 등 잇따라

광주서 연말 연초 50건 발생 … 갈수록 늘어

겨울방학을 맞은 일부 청소년들의 범죄 및 탈선 행위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들 청소년은 부모의 무관심 속에 가출을 한 뒤 PC방 등을 전전하며 각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방학 중 청소년 범죄 속출**=광주동부경찰은 24일 친구들과 짜고 자신의 자취방에 놀러온 친구의 돈을 훔친 정모(18·광주 모 고교 3년)군 등 5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군은 지난달 25일 밤 10시께 북구 유동 자신의 자취방에서 친구 노모(19)군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90만원과 지갑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군은 평소 노군이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닌다는 점을 알고 친구 김모(18)군 등 4명과 짜고 노군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지갑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경찰은 또 북구 모 아파트 상가 앞에 세워진 70만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친 광주 모 중학교 3년 국모(15)군 등 중학생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앞서 서부경찰은 지난 16일 PC방에서 손님이 두고 간 현금 30만원이 든 지갑을 몰래 가져간 김모(15·광주 모 고교 1년)군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훔친 승용차를 타고다니면서 상습적으로 차량털이를 한 배모(18)군 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배군 등은 서구 농성동에 주차된 정모(33)씨의 1t 화물차를 도구로 이용해 문을 연 뒤 내비게이션을 훔치는 등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범죄 지능화·흉포화**=경찰은 방학 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청소년범죄를 막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부경찰이 24일 하루동안 절도 혐의로 붙잡은 청소년만 모두 10명에 이른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50여건에 이른다. 이는 중·고교가 방학에 들어간 이후 청소년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매년 범죄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방학중 청소년들의 범행이 증가한 것은 방학의 경우 학교나 학부모의 보호나 제한을 적게 받는다는 점에서 평소보다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놀이·문화공간과 같은 완충지대를 제공해주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이 2009년 발간한 경찰백서에 따르면 국내 소년범은 ▲2006년 9만628명 ▲2007년 11만5661명 ▲2008년 12만3044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연령대도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눈길 고속도로 사고 24일 오전 10시께 무안광주고속도로 무안 방향 24.4㎞ 지점에서 최모(53)씨가 운전하던 대형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2개 차선 중 1개 차선을 가로 막았다. 이 사고로 차량 소통이 2시간 동안 지연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는 등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중·고 졸업식 '알몸 뒷풀이' 등 집중단속

광주·전남북 경찰

경찰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중·고교 졸업식에서의 각종 일탈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졸업식을 전후로 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의 중점 단속 내용은 졸업식장에서의 '밀가루 뿌리기'나 '계란 던지기', '교복 찢기', '알몸 뒤풀이' 등이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 경찰은 최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은 교육청 측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중점 단속에 나선다.

광주·전남교육청도 졸업식을 앞두고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전북의 경우 졸업식을 마친 중·고교생의 '알몸 뒤풀이'와 '밀가루 뿌리기' 등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경찰과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생활 지도 점검단'을 배치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 접촉 총경 이상 경찰 간부 50여명

'함바 비리' 브로커인 유상봉(65·구속기소)씨와 접촉한 적이 있다고 스스로 신고한 총경 이상 경찰 간부가 50여명으로 늘어났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고 기한까지 브로커 유씨와 접촉 사실을 털어놓은 직원이 40여명이고 뒤늦게 10여명이 추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폭설 '시민의 발' 되어준 경찰

체인 빌려주고 고립 차량 구출 등 '칭찬 릴레이'

올 들어 광주·전남지역에서 폭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폭설 속에서 경찰관의 도움에 감동을 받았다는 시민 김영갑씨의 글이 올라왔다.

김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눈이 내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경찰관이 스노우체인을 빌려준 뒤 직접 채워주기까지 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씨는 "폭설이 내리던 지난달 말 화순에서 너릿재터널을 향해 운전을 하던 중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당황했는데 이를 본 이경복 경위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200m 가량을 걸어 내려와 체인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이 경위는 현재 광주청 보안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어 김씨는 "체인을 장착할 줄 몰랐는데, 이 경위가 체인 장착 작업을 해주고, 직접 차를 운전해 터널 입구까지 올라가게 해줬다"며 "나중에서야 거듭 신분을 물어본 끝에 경찰인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최근 광주·전남지역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눈이 내려 차량이 고립됐다가 경찰관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사연 ▲갑자기 차량 문이 잠겨 추위에 떨고 있던 중 인근 파출소에서 몸을 녹인 사례 ▲한밤 중 폭설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길을 잃었다가 2km 가량을 걸어온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무사히 귀가한 사례 등 크고 작은 경찰관들의 선행을 소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최영함 함장 배출 군산고 '뿌듯'

현수막 걸고 초청 준비 … 고향 여수 부친 따라 이사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 주얼리호의 선원을 구출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청해부대 '최영함(4500t급)'의 함장 조영주(47) 대령이 군산고 출신으로 알려지자 학교와 동창회측이 자부심과 함께 크게 반기고 있다.

24일 군산고와 동창회에 따르면 최 함장은 1979년도에 군산고에 입학한 뒤 1982년 졸업(군산고 31회·통합 55회)하고 해군사관학교를 40기로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향이 여수인 조 대령은 아버지 직장 때문에 군산으로 건너와 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고 정주섭(54) 교장은 "학교 슬로건이 '조국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중심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자!"인데 조 동문이 이 같은 슬로건을 몸소 행동으로 실천했다"면서 "조 대령의 업적을 교직원과 함께 가슴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교장은 "해군 작전 일정 등을 감안해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조 대령을 학교로 초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동문과 지역주민들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구출작전을 진두지휘한 조 대령이 군산고 출신으로 확인되면서 그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다.

시민 박모씨는 "신출귀몰한 작전으로 조국의 명예를 드높인 조 대령과 청해부대원들의 공로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조 대령과 청해 부대원들이 몇 개월 남은 파견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고 총동창회도 "'아덴만의 여명'으로 명명된 구출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한 최 함장이 학교 명예를 크게 드높였다"면서 "최 함장이 동문임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걸어 최 함장의 치적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나원참 〈8229〉 김종두

개 연쇄도살 고교생 둘 구속 동물학대 혐의 영장 첫 발부

경기도 양주지역에서 재미삼아 길거리 개를 잔혹하게 연쇄 도살한 고교생 2명이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박연욱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고교생 A(18)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학부모 가장 학원서 금품 '슬쩍'

쌍나팔

○…광주서부경찰은 24일 학부모를 가장해 학원에서 금품을 훔친 강모(35)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4시4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학원에서 현금 127만원 등 총 197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던 강사 윤모(여·35)씨의 손가방을 가져간 혐의.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학부모인 것처럼 속여 학원에 들어간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돈을 훔쳤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